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인의 보험이해도, 낮은 것으로 나타나

□ 미국인의 보험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감독관협회(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, NAIC)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5%의 응답자가 보험 가입 결정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86%는 최근 통과된 건강보험개혁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설문은 1,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험과 관련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10개의 문항이 포함됨.
- 조사결과 10개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40%로 크게 낮았으며, 특히 도난당한 자동차 안에 있는 소지품도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가?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(Medicare)최초 가입연령은 어떻게 되는가? 등 기본적인 문항에 대해서도 60% 이상이 답하지 못하는 등 미국인들의 보험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.
- NAIC의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 변화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 보험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밝히고, 현재의 보험가입 결정이 미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상품 선택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,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.

□ 설문결과 건강보험에 있어 기존 건강상태의 중요성과 노인의료보험의 가입시기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가장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.

- 55%의 응답자들이 건강보험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기존 건강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, 40%는 노인의료보험 가입시기가 65세임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-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63%의 응답자가 도난당한 자동차에 있었던 소지품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재물보험으로 보상받는다든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, 54%는 주(州)에 따라서 본인의 신용점수가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(Insurance News Net, 4/6)